



## 無等に 오르다

### 기획의도 전시기획(문화디자인)

無等山은 광주를 잉태하고 광주를 낳은 어머니이다. 그래서 無等山은 광주시민에게 안식이며 평안이다. 도시의 욕망과 분주함,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들이 무등의 품안에서 녹아내린다. 무등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보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무등(無等)의 의미는 무엇인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낮은 자와 높은 자,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없이 자신을 낮추어 내어드리는 것이 無等の 마음이다.

광주민은 무등을 밟으며 위안과 생명을 얻는다. 無等이 우리의 발아래 밟힘으로 우리는 그 無等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이렇게 無等は 날마다 자신을 광주민에게 내어드린다.

우리는 無等を 그냥 산으로만 보아왔다. 우리의 등 뒤에서 있는 것,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우리는 無等이 말없이 헌신하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광주의 어머니 無等を 다시 보아야 한다. 無等の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 그리고 無等を 다시 맛보아야 한다. 無等を 보고(Gazing), 듣고(Listening), 맛보(Tasting) 수 있는 무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참여작가

김영태(사진, 설치),  
김치준(도자기)  
박상화(영상, 사운드),  
박솔(페인팅)